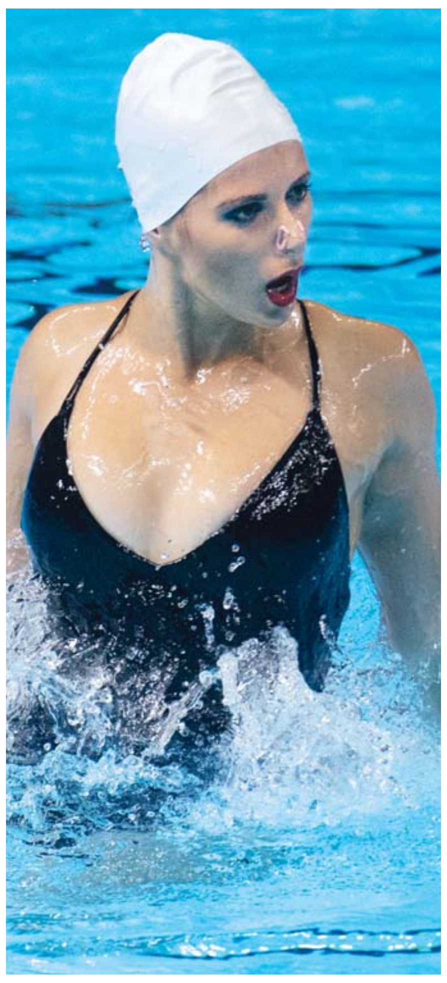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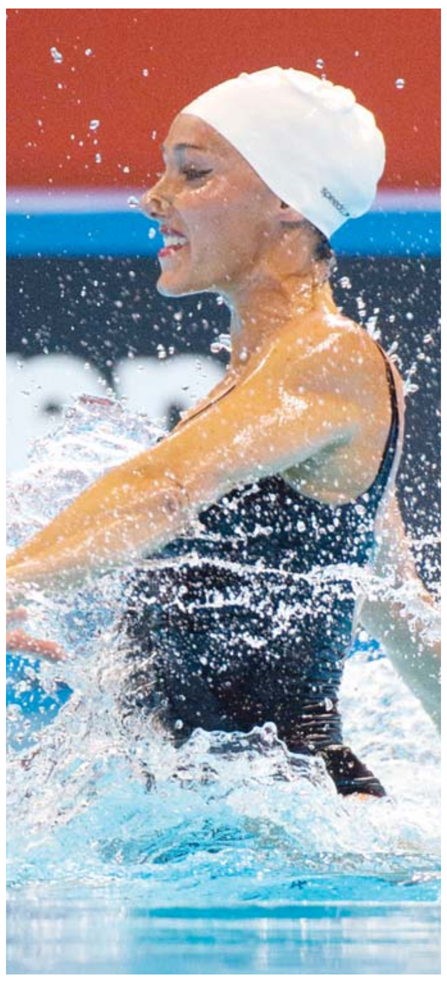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062호 1판 (음력 7월 6일) 2019년 8월 6일 화요일

빛고을 세계 수영 동호인 축제 개막





왕년의 수영 스타 … 녹슬지 않은 연기

2019 광주세계수영마스터즈선수권대회가 개막한 5일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 경기장에서 솔로 테크니컬 참가자들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프랑스의 오로르 페르히(25-29세 이하), 네덜란드의 시스케 클라인(30-39세 이하), 프랑스의 실라통디 프란시스카(40-49세 이하).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GWANGJU 2019 | Fina WORLD MASTERS CHAMPIONSHIPS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6000여명 참가 14일 열전
5개 종목 2955개 메달 … 광주 문화·음식 세계에 홍보 기회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5일 광주에서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마스터즈대회에 참가한 6000여명의 국내외 아마추어 수영 동호인들은 오는 18일까지 14일 간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광주의 맛과 멋, 흥을 제대로 만끽하는 등 수영 축제에 빠져 들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고령에도 여전히 젊음을 과시하는 세계 각국 동호인들이 상당수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고, 동호인 대회 특성상 메달 수만도 3000여개에 달하고 있어 앞서 열린 선수권대회와 또 다른 볼거리들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 아티스틱 경기장에서 솔로 테크니컬 루틴 경기와 광주 남부대 수구 경기장에서 남자 60세 이상 예선전을 시작으로 '2019 마스터즈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기는 이날부터 시작됐지만, 대회 개회식은 경영 종목 시작 전날인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부터 남부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회 첫 날 주 경기장인 남부대 마켓스트리트 내에는 폭염 속에도 'ICT체험관'과 한국 전통문화체험관에는 많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또, 수구 경기장에서는 선수권대회와 달리 '경쟁'이 아닌 '즐기는' 스포츠라는 점을 실감케하는 장면도 펼쳐졌다.

해외 출전 선수의 가족은 클럽 대항전이 펼쳐진 수구경기를 관전하면서 관람석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광주의 햇볕'을 즐기기도 했고, 선수들과 가족들은 광주의 문화와 음식, 관광 일정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마스터즈 대회 개최 기념 축하공연'에도 국내외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가수 장윤정, 윤수일씨 등 출연진이 공연을 선보일 때마다 박수와 환호로 축제 열기를 북돋웠다.

이번 대회에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 참가자들도 340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경기도 볼거리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남녀 최고령 참가자는 만 91세로, 모두 3명이 엔트리로 등록됐다.

장거리 수영종목으로 젊은 선수들도 힘든 오픈워터 경기에도 만 87세 남녀가 참가하고,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는 아티스틱 경기에도 만 71세의 프랑스 동호회원이 최고령자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의 메달 숫자가 2955개에 달하고, 시상식만 모두 631회에 걸쳐 진행되는 것도 볼거리 중 하나다. 경쟁 보다는 친선과 화합, 축제에 의미를 둔 만큼 1~3위 입상자에게 금·은·동메달이 수여되는데, 이 숫자가 2955개다. 이 가운데 금메달만 985개다. 앞선 선수권대회 금메달이 76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배가 많은 숫자다. 또 4위에서 6위까지는 2415개의 기념메달이 수여되고, 1~6위 모두에게는 5370개의 대회 증서가 수여된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가족 및 동호회 단위로 대회에 참가한 만큼 광주의 맛과 멋, 흥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충분히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대회를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 상품·음식, 그리고 광주의 시민의식 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양 백운산 계곡 위험한 물놀이 ▶6면
굿모닝 예향 - 동네 미술관 ▶18·19면
KIA 투수 임기영이 돌아왔다 ▶20면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따라잡는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의 비이성적인 결정을 탈(脫)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며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증시 '검은 월요일'

코스피 1940선 후퇴·코스닥 사이드카 발동…환율 급등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등 국내외 악재 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5일 동반 급락했다. 〈관련기사 15면〉

이날 코스피는 지난 2일 2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전 거래일보다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2016년 6월 28일(1.936.22)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 낙폭은 2007년 8월 16일(77.85포인트)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치다.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날 오후 3년 1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증시 급락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정치적 이슈와 함께 원화·위완화 등 환율 급변이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7.3원 오른 1215.3원에 마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